

##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에 기초한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 개발

A Development of the Preschool Teacher Play Support Scale Based on the Play Practice Resources for Teachers of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성안나<sup>1</sup> 김연하<sup>2</sup> 이지선<sup>3</sup>

Anna Sung<sup>1</sup> Yeon Ha Kim<sup>2</sup> Jiseon Lee<sup>3</sup>

### ABSTRACT

**Objectiv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teacher support for children's play (age 3-5) based on the Play Practice Resources for Teachers presented i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33 early childhood educators.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 well as correlation analysis were all performed to confirm construct validity and concurrent validity. The reliability of each factor was verified using Cronbach's alpha.

**Results:** The Preschool Teacher Play Support Scale (PTPSS) was finalized with 25 items, which included the following four sub-factors: interaction, play materials, play space, and play safety. The concurrent validity was also confirmed through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existing measures such as the Teacher Self-Efficacy Scale, the Teaching Efficacy Scale for Play, and the Teacher-Toddler Interaction Scale. The reliability of each factor was also desirable.

**Conclusion/Implications:** The PTPSS was verified as a sound measure quantifying the play support behavior of teachers who respect the autonomy and initiative of young children which is being pursued by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key words**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early childhood teachers, validation, play support

#### <sup>1</sup> 제1저자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생

#### <sup>2</sup>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 yeonhakim@khu.ac.kr)

#### <sup>3</sup> 공동저자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생

## I. 서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 등의 기술 발전으로 가까운 미래에 인간이 가진 노동의 상당한 부분을 기계가 대체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인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미래 사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의 변화로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또한 미래사회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유아 및 초등학생의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의 보장을 법제화한 정부 국정 과제와 유아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국내·외 흐름을 반영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개편하였다. 2019년 7월 24일 고시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앞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식을 잘 활용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바른 인성을 갖추며, 창조적인 사고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천할 것을 명시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란 기존의 교사 주도 교육과정 운영을 반성하고 유아가 관심을 보이는 현상과 놀이에 집중하며,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강조하는 발현적 교육과정이다. 이는 양적 지식을 축적하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유아의 배움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놀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놀이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고, 자유로운 창작자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며(Huizinga, 1938/2018), 유아에게는 삶이자 생활 그 자체이다. ‘유아는 놀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는 놀이를 통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터득하게 된다. 이러한 자유로운 과정 속에서 유아는 신체·사회·언어·인지·정서적 발달의 기초를 마련하여 전인적 성장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그렇기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놀이의 회복’은 창조적 인재 양성의 핵심이자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놀이 중심’은 기존의 누리과정에서 실행해왔던 놀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장에서 그 의미를 혼동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경화, 2019). 그동안 모든 누리과정에서 놀이는 빠짐없이 강조되어 왔지만 놀이 그 자체로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주로 교사가 계획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도구적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한 예로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역할놀이(김현 등, 2006; 선규수 등, 1997; 송순옥, 2018), 수학 및 공간지각 능력 신장을 위한 쌓기놀이(이순복, 2010; 지성애 등, 2019; 최미숙 등, 2012), 사회성 향상을 위한 극놀이(김영숙, 최석란, 1997; 박지영, 최미숙, 2009; 신애선, 2018; 조유진, 2018)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과정 안에서의 놀이는 교사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되고, 그 효과를 검증해내야만 하는 것이었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그에 따라 실행되며, 일련의 사후 평가 단계를 거쳐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되었기에 표면적으로는 유아의 놀이가 실현되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사는 유아의 관심과 흥미, 경험에 기초한 놀이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확장하여 배움으로 이끄는 놀이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교사의 역할과는 매우 대비된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의 사전 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교사가 정해진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유아의 특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해서도 유아가 보이는 놀이의 의미와 특성에 주목해 메모나 사진과 같이 교사가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권고하는 등 평가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확대하고 교육의 주체인 유아와 함께 진정한 놀이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교육을 함께 실천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놀이는 교사에 의해 놀이자료가 제시되고, 정해진 놀이 시간과 인원이 있으며, 해당 놀이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도 사전에 계획되었던 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놀이는 유아에 의해 시작되고 변

형되며, 나아가 교육의 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교사는 기존에 실행되던 놀이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놀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 역할 전반에 대한 변화가 제고된다. 이렇듯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현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해 수업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이에 교사의 개인적 변인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 역량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현실(2020)의 연구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과정에 대한 역량이 높았지만 교사 연수 횟수나 교육기관의 유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김동례(2022)의 연구에서는 경력이나 학력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실천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누리과정 연수 시간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접하는 교사들은 경력에 상관없이 정답 없는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교사의 놀이 개입 정도의 불분명한 경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윤경옥, 이대균, 2020; 이원미, 권연희, 2020). 이렇듯 여러 선행연구에서 교사 개인적 변인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전히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놀이의 의미 변화를 교사가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나 교육적 제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대학의 유아교육 관련 교과과정은 대부분 수·과학 교육, 언어교육과 같이 분절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교과 영역이 놀이 안에서 통합되고 확장되는 배움의 과정을 교사가 적절하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잠재적 문제도 존재한다. 그리고 기존의 제한된 놀이공간을 탈피하고 새로운 놀이 과정을 탐색하며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기를 기대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바람과 달리,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유아의 놀이를 제한하고 축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선행연구에서는 현장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구체적인 놀이 실행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다는 공통된 결과가 보이기도 했다(윤민아, 2019; 허민정, 권희경, 2019; 채승연, 2020). 따라서 유아교사들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놀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유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격려하는 교사의 바람직한 놀이 개입 방안을 점검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교사의 역할을 살펴본 척도는 대부분 교수 역량이나 교수 창의성과 같은 교사 중심의 개인적 변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유아교사의 수업역량을 측정 한 김연수(2017)의 척도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내적 동기와 태도, 수업개선에 대한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업목표와 설계, 교수법, 학습분위기 조성, 영유아 평가에 대한 역량을 구체화하고 타당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당 척도는 교사가 정해진 교육목표를 유아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유아를 배움의 주체로 인식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지향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교사의 교수 창의성을 측정 한 백영숙과 김희태(2009)의 척도는 교사의 창의성을 인지적 요인과 인성적 요인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특성을 세밀하게 나누어 명시함으로써 교사의 교수학습 전략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척도는 교수방법

에만 국한하지 않고 교사의 융통성이나 동기유발 방식 또한 고려했다는 점에서 타 척도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창의성이라는 특성이 측정하기 모호하다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주체를 교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밖에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측정한 이은지와 김지현(2022)의 척도는 그동안 다양하게 해석되던 자율성의 개념을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해 재범주화하고 명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것인지, 이를 통해 어떻게 배움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교육과정의 주체이자 지식 전달자로 인식되던 교사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변화된 교육과정을 반영한 놀이환경과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 역할에 관한 새로운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교사가 관찰을 통해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물리적인 환경인 놀이공간과 놀이자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실행자료 중 교수·학습 실천하기는 현장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포된 자료로써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짜여진 공간과 시간의 틀에서 벗어나 유아가 자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자료와 시간을 조직화하며, 안전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의 신념과 행동이야말로 혁신적으로 유아중심에 다가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뿐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놀이환경 및 안전에 대한 영역을 새롭게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했다는 점 또한 변화된 유아교육의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교수·학습 실천하기는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교육과정의 실재를 구현할 수 있는 실증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교수·학습 실천하기에서 제시한 항목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놀이 중심·유아 중심의 가치에 가장 적합하고 직접적인 교사의 행동목록이며, 이를 근거로 교사의 놀이 지원을 평가하는 것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바와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인 놀이실행자료의 교수·학습 실천하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하여 교사의 행동특성 중심으로 유아교사용(3~5세) 놀이지원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교사의 놀이지원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척도는 놀이지원에 대한 교사의 자기성찰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현장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교사용(3~5세) 놀이지원 척도의 문항구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교사용(3~5세) 놀이지원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유아교사용(3~5세) 놀이지원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직중인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는 33명, 본 조사에는 300명의 유아교사가 참여하였다. 본 조사 표집방법은 구글 설문지를 통한 임의표집이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모든 응답자가 누락 문항 없이 설문지에 성실히 응답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300)

구분		명(%)	구분	명(%)	
연령	20대	126(42.0)	담당반	만 3세	95(31.6)
	30대	137(45.7)		만 4세	99(33.0)
	40대	33(11.0)		만 5세	66(22.0)
	50대 이상	4(1.3)		혼합연령	40(1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5(1.7)	반 현원	10인 미만	29(9.7)
	전문대학교 졸업(2~3년제)	109(36.3)		10인 이상 ~ 15인 미만	51(17.0)
	4년제 대학교 졸업	138(46.0)		15인 이상 ~ 20인 미만	80(26.7)
	대학원 재학/졸업	45(15.0)		20인 이상 ~ 30인 미만	104(34.7)
	기타	3(1.0)		30인 이상	36(12.0)
경력	1년 미만	3(1.0)	담임 수	1명	141(47.0)
	1년 이상 ~ 3년 미만	30(10.0)		2명	118(39.3)
	3년 이상 ~ 5년 미만	54(18.0)		3명	23(7.7)
	5년 이상 ~ 7년 미만	60(20.0)		4명	13(4.3)
	7년 이상 ~ 10년 미만	49(16.3)		5명	5(1.7)
	10년 이상	104(34.7)			
기관 유형	공립, 병설, 단설유치원	53(17.8)	자발적 누리과정 관련 추가교육	0시간	154(51.3)
	사립유치원	80(26.7)		1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5(35.0)
	가정·민간 어린이집	80(26.7)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32(10.7)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84(28.0)		20시간 이상	9(3.0)
	기타	2(0.8)			

### 2. 측정도구

#### 1) 놀이지원 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는 2020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인 ‘놀이실행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놀이실행자료 중

‘제Ⅱ부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에서 ‘교수·학습 실천하기’를 참고로 하였는데 이를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수방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의 행동특성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된다. 각 하위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놀이지원 수준이 질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문항은 예비조사를 통해 재검정되었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김연하, 김양은, 2008),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 척도(신은수 등, 2004), 그리고 교사-유아 상호작용 척도(육아정책연구소, 2014)의 상관관계를 통해 공인타당도를 보고하였으며, 교사의 개인적 변인(경력, 학력, 자발적 누리과정 관련 추가교육)에 따른 놀이지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2) 공인타당도 확인을 위한 척도

### (1) Bandura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교사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andura(2006)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 TSES)를 요인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유아교사용으로 재구성한 김연하와 김양은(200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 자기 효능감 특성에 대한 유아교사의 지각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은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 13문항과 교수 7문항, 지역기관 연계 4문항, 의사결정 참여 5문항 등 총 29문항이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교사 자신의 효능감 지각 수준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에 대한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는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 .86, 교수 .75, 지역기관 연계 .74, 의사결정 참여 .64이며, 전체는 .91이다.

### (2)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신은수 등(2004)이 개발한 유아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교사의 놀이에 대한 효능감과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은 놀이교수 효능에 대한 신념 12문항과 놀이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 9문항 등 총 21문항이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교사 자신이 느끼는 효능감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에 대한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는 놀이교수 효능에 대한 신념 .86, 놀이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 .82이며, 전체는 .90이다.

### (3) 교사-유아 상호작용 척도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Bredekamp(1985)의 ECOI를 Holloway & Reichhart- Erickson(1988)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교사의 태도 및 교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측정하

는 것으로 총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6문항과 유아-유아 상호작용 4문항 등 총 10문항이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유아를 대하는 교사 자신의 상호작용과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에 대한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78, 유아-유아 상호작용 .68이며, 전체는 .86이다.

### 3. 연구절차

본 척도의 개발 계획에 따라 3인으로 구성된 연구진(아동학 전공 박사수료 2명, 아동학 전공 대학교수 1명)이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인 놀이실행자료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1차 문항을 구성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기술통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 문항과 관련한 의견을 받아 2차 문항을 수정하여 적절성을 토의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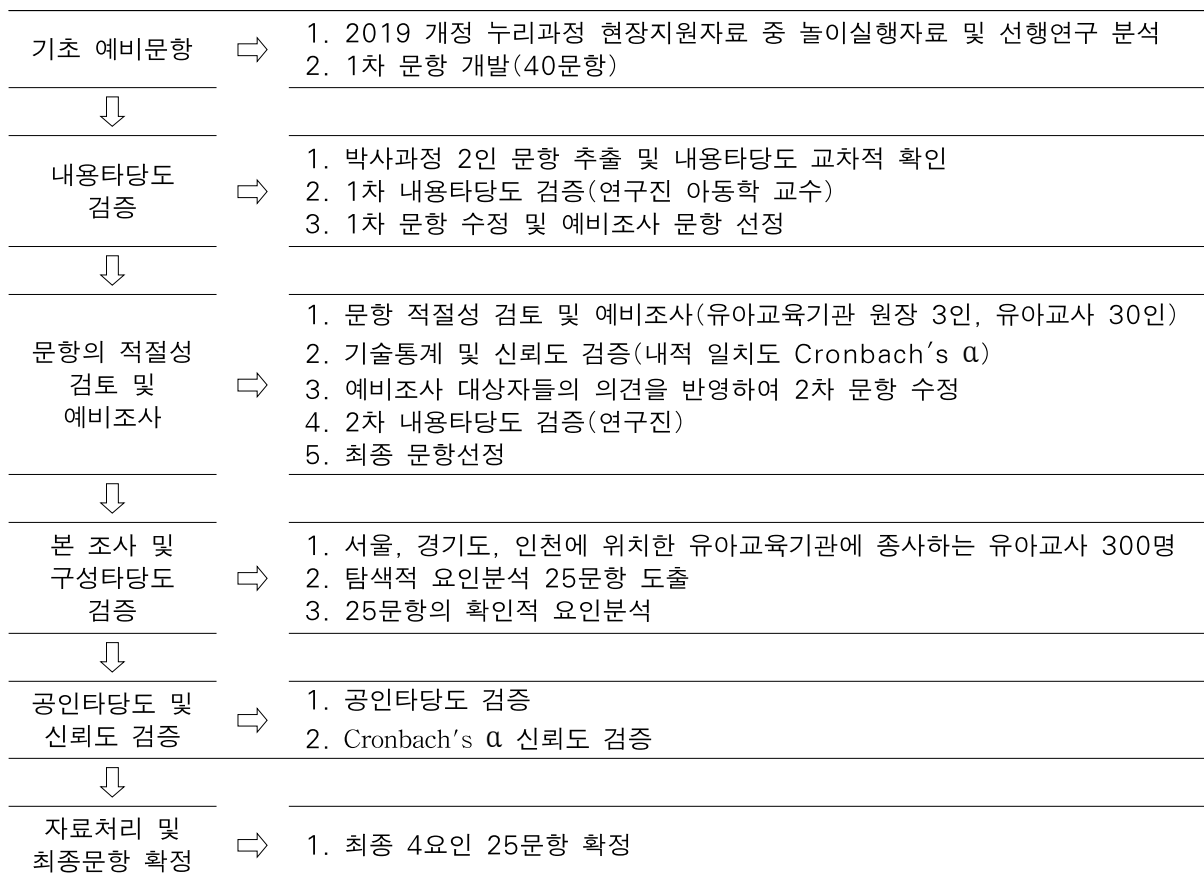


그림 1.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의 연구절차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산출하였다. 둘째,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인 교사의 개인적 변인(경력, 학력, 자발적 누리과정 관련 추가교육)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하위 영역별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문항구성 결과

##### 1) 문항제작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 개발을 위해 연구진 중 2인의 아동학 전공 박사 수료자가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의 교수·학습 실천하기 내용을 분석하고 각각 40문항씩 추출하였다. 총 80문항에 대하여 놀이실행자료의 놀이지원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각각 1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후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로 문항을 선정하여 총 40문항을 선별하였다. 선별한 40문항의 내용타당도를 나머지 연구진 1인(아동학 전공 교수)이 다시 검증하였고, 적합하지 않은 문항내용을 수정한 후 총 40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 2) 예비조사

2020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원장 3인과 5년 이상의 보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30명의 교사에게 문항의 적합도 확인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5년 이상의 보육경력은 교사 발달의 ‘성숙기’에 해당하며(Katz, 1972), 성숙기에 해당하는 교사는 교사로서 완전한 자신감과 경험을 갖추게 되고, 경험을 조직화하면서 다른 교사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항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한 문항에 대한 질적 평가를 작성하도록 하여 6개의 문항이 수정되었다. 교사의 놀이지원 행동이 아닌 유아의 행동으로 인식된다는 문항들(예: ‘유아 스스로 교구장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재배치 한다.’→‘유아 스스로 교구장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재배치 하게 한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단어 수정이 필요한 문항들(예: ‘일상에서 놀이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을 유아들과 함께 찾아보고 활용한다.’→‘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사물을 유아들과 함께 찾아보고 활용한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해석되는 문항들(예: ‘안전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면서 새로운 놀이를 하도록 한다.’→ ‘놀이를 하면서 필요한



규칙이나 약속을 정하게 한다.’) 등을 수정하였다.

### 3) 본조사

2020년 12월 7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만 3, 4, 5세 유아반 담임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구글(Google) 설문 기능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는 것이 어렵고, 우편의 경우는 회수율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PC나 모바일 등으로 링크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설문에 응할 수 있으며, 문항에 필수 옵션을 설정해 놓으면 결측없이 설문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불성실한 응답 없이 300부를 회수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의 타당도

### 1)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의 구성타당도

####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값이 .932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도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chi^2 = 4917.951(df = 780), p < .001$ )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 회전은 varimax를 이용하였다. 먼저, 고유치의 경우 1이상의 수가 8개로 산출되었는데 스크리 도표에서는 3번요인까지는 고유치가 급격한 차이를 보이다가 4번 요인부터는 완만하게 줄어들며 변화가 거의 없이 평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가정한 요인의 수가 4개인 점을 고려하여 3개 요인보다는 4개 요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추출할 요인 수를 4로 지정한 후 추가 타당도를 분석하고,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인 2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총 25문항 역시 KMO(Kaiser-Meyer-Olkin)값이 .929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도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chi^2 = 2845.249(df = 300), p < .001$ )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네 요인의 총 설명력은 52.00%로 나타났으며, 최종 요인 구조와 요인 부하량은 표 2와 같다.

표 2.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 최종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 = 300)

문항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공통성
	상호작용	놀이자료	놀이공간	놀이와 안전	
Q11	.68	.15	.08	.19	0.53
Q2	.67	.13	.03	.12	0.49
Q6	.65	.32	.03	.11	0.54
Q3	.65	.31	.15	.04	0.48
Q9	.64	.13	.23	.05	0.54
Q4	.63	.04	.19	.19	0.47
Q5	.62	.24	.04	.22	0.49

표 2. 계속

문항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공통성
	상호작용	놀이자료	놀이공간	놀이와 안전	
Q12	.59	.30	.11	.28	0.53
Q10	.55	.17	.22	.15	0.40
Q1	.54	.27	.10	.21	0.42
Q7	.52	.29	.17	.14	0.40
Q1	.13	.79	-.01	.11	0.66
Q9	.26	.66	.20	.11	0.56
Q6	.23	.65	.20	.05	0.52
Q2	.20	.63	.18	.13	0.47
Q5	.36	.57	.25	.15	0.55
Q3	.30	.52	.06	.34	0.49
Q5	.20	.03	.78	.02	0.66
Q6	.19	.27	.72	-.05	0.55
Q2	.02	.05	.70	.29	0.49
Q1	.26	.35	.51	.14	0.45
Q7	.18	-.01	.24	.75	0.65
Q8	.27	.28	.13	.62	0.63
Q4	.34	.34	-.04	.50	0.57
Q1	.36	.35	-.02	.44	0.47
고유치	5.04	3.60	2.33	2.02	
설명변량(%)	20.19	14.41	9.33	8.07	
누적변량(%)	20.19	34.60	43.93	52.00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4요인 25문항 대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이 자료와 부합되는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 중 IFI 및 CFI값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 중 RMSEA 값을 살펴보았다. IFI와 CFI는 일반적으로 0과 1사이이며, .9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며,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평가할 수 있다(Browne & Cudek, 1993).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IFI는 .934, CFI는 .934, RMSEA는 .047로 나타나 우수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둘째, 내용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요인 부하량을 측정된 결과,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0.55 ~ 0.71 수준으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가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며, ‘.95’이하이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놀이와 안전에서 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8로 나타났지만, 개념적으로 해당 요인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문항에 포함시켰다.

셋째, 수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CR: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평균분산추출은 값이 ‘.50’ 이상일 때, 개념 신뢰도는 ‘.70’ 이상의 값을 보일 때 좋은 수준에 해당된다(우종필, 2016). 본 연구의 분산추출지수는 상호작용은 0.97, 놀이자료는 0.92, 놀이공간은 0.87, 놀이와 안전은 0.93으로 네 차

원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 신뢰도는 상호작용은 0.99, 놀이자료는 0.98, 놀이공간은 0.96, 놀이와 안전 0.98으로 산출되어 수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난 구조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 모형의 적합도 (N = 300)

모델	df	$\chi^2$	IFI	CFI	RMSEA
4요인(25문항)	269	443.66	.934	.934	.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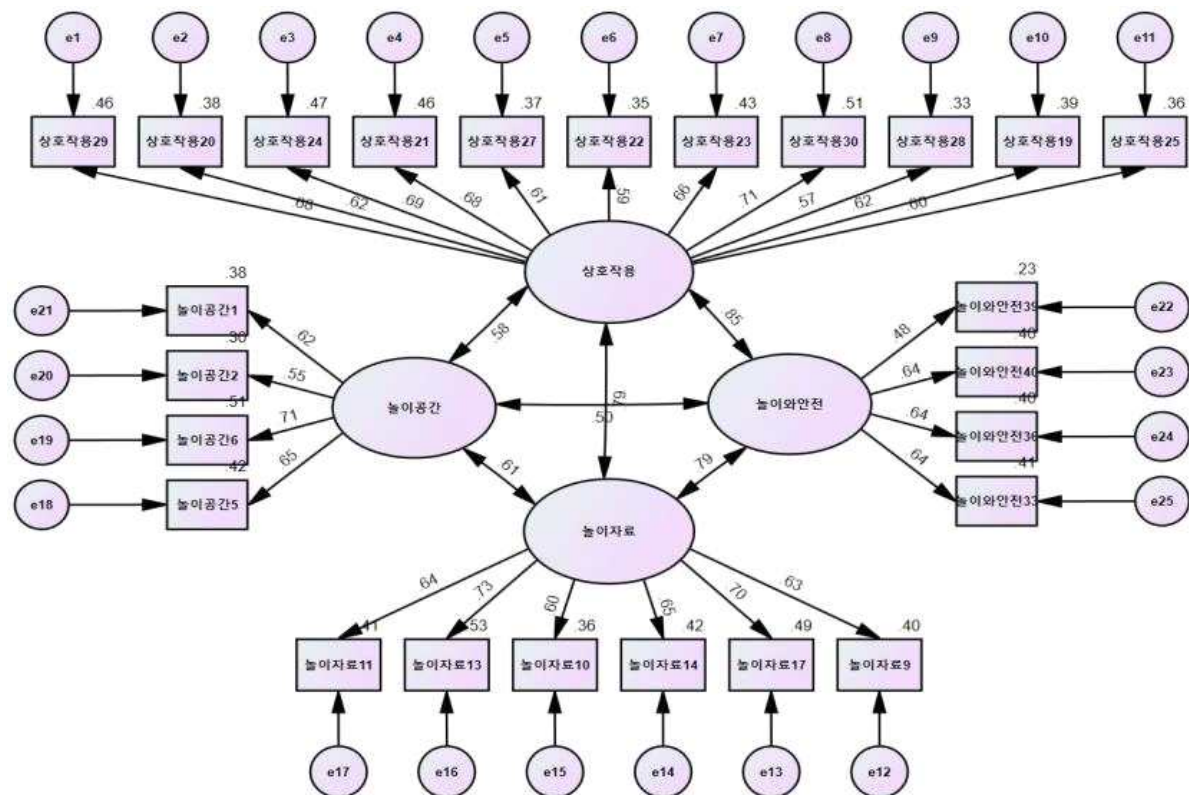


그림 2.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의 구조모형

## 2)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의 공인타당도

본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 척도, 그리고 교사-유아 상호작용 척도와 상관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세 가지 도구를 공인타당도 측정을 위해 사용한 이유는 본 척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유아에게 교육과 일과, 그리고 놀이를 지원함에 있어 교사 자신의 효능감이나 상호작용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교사의 놀이지원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척도의 하위 요인과 교사의 개인적 변인(경력, 학력, 자발적 누리과정 관련 추가교육)에 따라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의 공인타당도

본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 자기 효능감,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 그리고 교사-유아 상호작용 척도와 상관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본 척도의 네 하위 요인 모두 교사 자기 효능감,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 그리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모든 하위 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놀이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 자기 효능감,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 그리고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와 공인타당도 관련 척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N = 300)

		상호작용	놀이자료	놀이공간	놀이와 안전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환경		.40**	.35**	.34**	.29**
교사 자기 효능감	교수	.62**	.69**	.41**	.54**
	지역기관 연계	.59**	.61**	.45**	.51**
	의사결정참여	.44**	.47**	.45**	.37**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	놀이교수 효능에 대한 신념	.69**	.72**	.52**	.60**
	놀이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	.57**	.52**	.47**	.48**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68**	.71**	.35***	.64**
	유아-유아	.63**	.77**	.32**	.66**

\*\* $p < .01$ .

(2) 교사 개인적 변인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본 척도와 유아교사의 개인적 변인(학력, 경력, 자발적 누리과정 관련 추가교육)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경력에 따라 놀이자료( $F = 11.21, p < .001$ )와 놀이와 안전( $F = 5.14, p < .001$ ), 그리고 상호작용( $F = 3.82,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두 10년 이상의 교사(놀이와 안전  $M = 4.55, SD = .47$ , 놀이자료  $M = 4.52, SD = .44$ , 상호작용  $M = 4.52, SD = .33$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놀이공간은 교사의 경력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라 놀이자료( $F = 28.15, p < .001$ ), 상호작용( $F = 19.77, p < .001$ ), 놀이와 안전( $F = 5.14, p < .01$ ), 놀이공간( $F = 3.50, p < .05$ )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두 대학원 재학 이상의 교사(놀이공간  $M = 3.95, SD = .82$ , 놀이자료  $M = 4.59, SD = .48$ , 놀이와 안전  $M = 4.44, SD = .47$ , 상호작용  $M = 4.59, SD = .36$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누리과정 관련 추가교육에 따라 놀이자료( $F = 4.41, p < .01$ )와 놀이공간( $F = 4.26,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놀이자료는 10시간 이상의 교사( $M = 4.46, SD = .47$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놀이공간은 1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의 교육을 수강한 교사( $M = 3.78, SD = .73$ )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반면, 상호작용과 놀이와 안전은 자발적 누리과정 관련 추

가교육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느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경력에서 상호작용과 놀이자료 모두 ‘5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교사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놀이와 안전은 ‘5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교사, ‘5년 이상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교사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서는 상호작용과 놀이자료는 ‘전문대 졸업 이하’와 ‘4년제 졸업’, 그리고 ‘대학원 재학 이상’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놀이공간과 놀이와 안전은 ‘전문대 졸업 이하’와 ‘대학원 재학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발적 누리과정 관련 추가교육은 놀이자료에서 ‘0시간’과 ‘10시간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놀이공간은 ‘0시간’과 ‘10시간 이상’, ‘1시간 이상 10시간 미만’과 ‘10시간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와 교사 개인적 변인 간의 분산분석 결과 (N = 300)

	경력			F
	~ 5년미만 (n=87)	5년이상 10년미만 (n=169)	10년 이상 (n=44)	
상호작용	4.43(.35) <sup>a</sup>	4.37(.32) <sup>ab</sup>	4.52(.33) <sup>b</sup>	3.82*
놀이자료	4.31(.53) <sup>a</sup>	4.07(.67) <sup>ab</sup>	4.52(.44) <sup>b</sup>	11.21***
놀이공간	3.75(.75)	3.66(.71)	3.85(.83)	1.38
놀이와 안전	4.33(.55) <sup>a</sup>	4.21(.52) <sup>a</sup>	4.55(.47) <sup>b</sup>	5.14***
	학력			F
	전문대졸업 이하 (n=114)	4년제 졸업 (n=138)	대학원 재학 이상 (n=45)	
상호작용	4.28(.26) <sup>a</sup>	4.46(.34) <sup>b</sup>	4.59(.36) <sup>c</sup>	19.77***
놀이자료	3.91(.60) <sup>a</sup>	4.33(.58) <sup>b</sup>	4.59(.48) <sup>c</sup>	28.15***
놀이공간	3.61(.61) <sup>a</sup>	3.72(.80) <sup>ab</sup>	3.95(.82) <sup>b</sup>	3.50*
놀이와 안전	4.18(.51) <sup>a</sup>	4.34(.56) <sup>ab</sup>	4.44(.47) <sup>b</sup>	5.14**
	자발적 누리과정 관련 추가교육			F
	0시간 (n=154)	1시간이상 10시간미만 (n=105)	10시간 이상 (n=41)	
상호작용	4.39(.34)	4.40(.35)	4.49(.28)	1.08
놀이자료	4.24(.62) <sup>a</sup>	4.09(.67) <sup>ab</sup>	4.46(.47) <sup>b</sup>	4.41**
놀이공간	3.67(.73) <sup>a</sup>	3.78(.73) <sup>a</sup>	3.67(.81) <sup>b</sup>	4.26**
놀이와 안전	4.27(.54)	4.27(.54)	4.41(.53)	1.33

\*  $p < .05$ , \*\*  $p < .01$ , \*\*\*  $p < .001$ , <sup>abc</sup>는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구분임.

### 3.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의 신뢰도

본 척도의 최종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70 이상일 경우 양호한 검사도구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새로운 측정도

구를 개발한 경우에는 .60 이상일 경우 적절하다고 본다(이경옥, 2015). 그 결과, 본 척도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70 ~ .88사이로 양호한 수준이며,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90로 나타났다.

표 8.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의 최종 문항 및 신뢰도

요인	문항내용	Cronbach's $\alpha$
상호 작용	1 놀이하는 유아에게 질문하며 관심을 보이거나 필요한 놀잇감이나 소품을 제공한다.	.88
	2 유아 간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려주며 개입 시기를 결정한다.	
	3 유아를 관찰하며 필요한 도움을 파악한다.	
	4 유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5 유아의 놀이에 필요한 도움이나 역할에 교사가 참여한다.	
	6 유아가 물체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놀이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한다.	
	7 유아가 놀이하며 보이는 표정, 태도, 감정 등 탐색과정을 관찰한다.	
	8 놀이 과정에서 유아의 생각과 사고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질문을 한다.	
	9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여 함께 즐긴다.	
	10 유아에게 다른 친구의 놀이를 소개해주며 관계를 맺도록 지원한다.	
	11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며 놀이를 제안한다.	
놀이 자료	12 유아가 놀잇감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놀이하는 것을 격려한다.	.82
	13 기존의 자료를 새로운 놀이방법으로 놀이하는 유아를 격려한다.	
	14 일상의 물건을 본래의 용도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 놀이하는 것을 수용한다	
	15 유아가 새롭게 발견한 놀이자료의 활용방법을 또래와 공유하는 것을 격려한다.	
	16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사물을 유아들과 함께 찾아보고 활용한다.	
	17 유아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놀이 공간	18 유아 스스로 교구장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재배치하게 한다.	.73
	19 공간을 배치하고 구성할 때 유아들 간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20 놀이공간을 구성 할 때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21 놀이영역을 고정해두지 않고 놀이의 흐름에 따라 조정한다.	
놀이와 안전	22 놀이와 안전에서 모든 교직원들이 유아들에게 일관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70
	23 기관 내 안전수칙이나 안전사고 등 안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교직원 간 소통하고 공유한다.	
	24 공구나 요리 도구 등 위험요소가 있는 도구를 유아가 사용하고 싶어할 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제공한다.	
	25 놀이를 하면서 필요한 규칙이나 약속을 정하게 한다.	
전체 (25문항)		.90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바를 잘 반영하는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인 ‘놀이실행자료’의 ‘교수·학습 실천하기’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개발을 위해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놀이지원의 하위 요인을 상호작용, 놀이자료, 놀이공간, 놀이와 안전으로 설정하고, 본 연구진 교수에게 예비문항의 적절성을 검토받아 총 40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문항 조사 후 내용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양적조사, 문항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질적 평가를 통해 1요인 14문항, 2요인 10문항, 3요인 8문항, 4요인 8문항 등 총 40개의 문항이 본 조사 문항으로 채택되었으며, 본 조사 후 최종 25문항이 본 연구의 최종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존 국가수준의 보육과정과 관련하여 개발된 척도는 유아를 측정하는 척도(신근영 등, 2019; 신근영, 정선영, 2017; 이미화 등, 2012)가 대부분이었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척도도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김수향, 2021; 박현진, 권이정, 2021; 조숙영, 2021)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놀이지원자료로서의 유아교사의 행동특성 질을 측정하는 본 연구가 개발한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Preschool Teacher Play Support Scale, PTPSS)는 기존의 연구 및 도구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15문항(상호작용 3문항, 놀이자료 4문항, 놀이공간 4문항, 놀이와 안전 4문항)이 삭제되고 최종 4요인 25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 역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에 대한 명칭은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인 놀이실행자료의 교수·학습 실천하기를 참고하여 문항의 개념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으로 채택하였다. 하위 요인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상호작용’ 요인은 교사가 유아의 놀이의 시작과 지속, 새로운 놀이로의 전이와 확장, 마무리 등 놀이의 흐름을 관찰하며, 유아의 놀이를 돕는 교사의 상호작용 특성을 측정한다. ‘놀이자료’ 요인은 교사는 유아가 어떤 자료에 흥미를 갖고 탐색하고자 하며, 놀이를 통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때 수용하는 교사 행동을 측정한다. ‘놀이공간’ 요인은 교사가 놀이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유아의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놀이공간을 구성하는 등 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한 교사의 행동특성을 측정한다. ‘놀이와 안전’ 요인은 유아 스스로 놀이 중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안전하게 놀이하는 규칙을 유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조력하는 교사의 행동특성을 측정한다. 즉, 본 척도는 교사의 주도가 아닌 유아의 놀이에 대한 놀이지원자료로서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인 놀이실행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재를 구성할지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셋째, 본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교사 자기 효능감과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 그리고 유아-교사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해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하위 요인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사 자기 효능감은 본 연구의 놀이자료 요인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놀이자료에 대한 지원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변길진(2010)의 연구에서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활동 및 환경을 구성한다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은 본 연구의 상호작용 요인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에게 적절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수 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여 유아의 놀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결과적으로 유아와의 언어 및 행동적 상호작용 모두를 증진시킨다는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권미성, 문혁준, 2013; 이현주, 2015). 마지막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본 연구의 놀이자료 요인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유아에게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수록 놀이자료에 대한 지원도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가운데 더욱 유아의 흥미에 따라 기존의 놀이자료를 변형 및 확장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을 밝힌 유승연(2020)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척도의 하위 요인과 기존 척도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놀이자료 요인이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호작용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놀이공간과 놀이와 안전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놀이공간 요인의 경우, 기존에는 놀이 영역 간 구분이 명확하고, 교사가 배치한 놀이공간이 주를 이뤘다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놀이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유아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둘째, 놀이와 안전 요인의 경우, 기존에는 교사가 보육실 내 위험한 요소를 미리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유아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사전에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역할은 동일하다. 하지만, 위험한 요소를 교사 단독으로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아닌, 유아와 협의를 통해 어떻게 안전하게 놀이할 것인지, 자신의 몸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놀이자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교육과정을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또한,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놀이공간의 배치와 놀이 중 안전에 관련한 요인들의 운영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정된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교육과정이라고 유아교사가 잘 인식하고 있을 때, 유아 주도의 놀이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보고한 허민정과 권희경(2020)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사의 개인적 변인인 경력, 학력, 그리고 누리과정 관련 추가교육 시간은 본 척도의 하위 요인과 대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력은 상호작용, 놀이자료, 놀이와 안전



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력이 높을수록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영역별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고, 보다 유능하게 유아의 놀이를 지원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강정은, 김정준, 2021; 박종명, 이연승, 2020). 그러나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교사 사이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볼 때, 경력이 높은 교사 일지라도 여전히 새로운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는데 개인차가 있으며, 유아의 놀이를 교육과정의 실제와 연결하는데 있어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사의 경력에 따라 교사 연수의 내용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는 이현주(2014)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해 볼 때, 경력에 따라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학력은 상호작용과 놀이자료에서 관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유아의 놀이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누리과정 관련 추가교육 시간은 놀이자료, 놀이공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시간 이상의 추가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추가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교사와 1시간에서 10시간 미만의 교육을 이수한 교사 간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사의 교육 이수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빠르고 효과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집합 또는 원격의 형태로 이루어져 온 교사 연수의 한계를 지적한 방현실(2020)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연수나 강의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교사의 교수 행동에 대해 컨설팅하고, 협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유아의 놀이지원에 대한 교사의 역할이 충분히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의 설문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2020년 3월에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개정된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운영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OVID-19로 인해 집단 휴원과 유아의 결석이 빈번했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교사가 개정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유아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교수 방향을 조절해 나갈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개정된 교육과정이 실행된 지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교사의 놀이지원 행동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은 편의표집에 의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교사로 한정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포괄적으로 지역을 배분하고 보다 많은 사례 수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존중한 교사의 놀이지원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였다. 특히, 현 시점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교사의 놀이지원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척도는 교사 스스로의 평가와 성찰의 도구로써 효용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더불어, 추후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사 교육을 개발하고 지원함에 있어, 본 척도는 교사의 놀이지원 수준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정은, 김정준 (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어린이미디어연구**, 20(1), 101-131. <https://doi.org/10.21183/kjcm.2021.03.20.1.101>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 권미성, 문혁준 (201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전문성 수준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4), 277-296. <https://doi.org/10.14698/jkce.2013.9.4.277>
- 김수향 (2021).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 인식이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2(6), 2447-2460.
- 김동례 (2022).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운영지원요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313-327.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313>
- 김연수 (2017). 유아교사용 수업역량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하, 김양은 (2008). Bandura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요인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8(2), 169-191. <http://doi.org/10.18023/kjece.2008.28.2.008>
- 김영숙, 최석란 (1997). 극놀이에서 교사의 단계별 지지가 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학회**, 18(2), 229-240.
- 김현, 고석원, 광혜숙, 차현화 (2006). 동화를 활용한 사회적 역할놀이와 동작표상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135-160.
- 박종명, 이연승 (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실행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한국유아교육연구**, 22(4), 26-45. <http://doi.org/10.15409/riece.2020.22.4.2>
- 박지영, 최미숙 (2009). 갈등상황에 대한 극놀이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1), 117-130.
- 박현진, 권이정 (2021). 저경력 유아교사들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경험. **한국유아교육연구**, 23(4), 185-210. <http://doi.org/10.15409/riece.2021.23.4.8>
- 방현실 (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교사연수 요구도. **구성주의유아교육연구**, 7(1), 67-98.
- 변길진 (2010). 유아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에 따른 놀이지도 양상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영숙, 김희태 (2009). 유아교사의 창의성과 교수 효능감. **유아교육학논집**, 13(3), 51-67.
- 선규수, 김재혁, 조초희, 김연현, 김일곤 (1997). 역할놀이의 단계적 지도를 통한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 신장 방안. **초등교육연구**, 12(1), 315-335.
- 송순옥 (2018). 일상적 내러티브를 활용한 갈등상황 중심의 역할놀이가 유아의 정서능력 및 언어표현

- 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10**, 131-155. <http://doi.org/10.37918/kce.2018.05.110.131>
- 신근영, 정선영 (2017).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만 2세용 의사소통척도 타당화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22**(2), 417-441. <http://doi.org/10.20437/KOAECE22-2-17>
- 신근영, 이영자, 이기중 (2019). 제3차 표준보육과정 활동프로그램에 기초한 만 2세용 사회관계영역 척도 개발 연구. **문화와 융합**, **41**(3), 1167-1218. <https://doi.org/10.33645/cnc.2019.06.41.3.1167>
- 신애선 (2018). 사회성 동화를 활용한 극놀이가 유아의 친사회적행동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359-380. <http://doi.org/10.22251/jlcci.2018.18.2.359>
- 신은수, 유영의, 박현경 (2004). 유아교사의 놀이에 관한 교수 효능감과 놀이운영 실제 신념에 관한 도구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1), 49-69.
- 우종필 (2016).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유승연 (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유아의 놀이 실행과정 및 교사의 놀이 지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4**(6), 75-100. <http://doi.org/10.32349/ECERR.2020.12.24.6.75>
- 육아정책연구소 (2014). **한국아동패널연구 5차년도 데이터 도구프로파일**. <https://panel.kicce.re.kr/pskc/index.do>에서 2020년 9월 10일 인출
- 윤경옥, 이대균 (2020). 보육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딜레마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5**(6), 149-172. <http://doi.org/10.20437/KOAECE25-6-07>
- 윤민아 (2019). 유아교사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어려움과 현장 지원 요구. **유아교육연구**, **39**(3), 5-30. <http://doi.org/10.18023/kjece.2019.39.3.001>
- 이경옥 (2015). **SPSS 명령문을 활용한 유아교육연구 분석**. 서울: 학지사.
- 이경화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과 그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량탐색. **어린이교육비평**, **9**(2), 5-33. <http://doi.org/10.26834/kscice.2019.9.2.5>
- 이미화, 이정림, 여종일, 김경미, 김명순, 이경옥, 등 (2012).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유아평가 연구-평가척도 개발(연구보고서 2012-3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순복 (2010). 쌓기놀이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기하 및 공간 감각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30**(1), 95-119. <http://doi.org/10.18023/kjece.2010.30.1.004>
- 이원미, 권연희 (2020). FGI 분석을 통한 유아교사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 역량 탐색.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4), 93-110.
- 이은지, 김지현 (2022).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1), 23-50. <http://doi.org/10.14698/jkce.2022.18.01.023>
- 이현주 (2014). 누리과정연수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15). 보육교사효능감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전문성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5**(4), 93-112.
- 조숙영 (2021). 보육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영역별 내용의 실행 정도와 운영 시 어려움. **인문사회**, **12**(6), 3039-3104. <http://doi.org/10.22143/HSS21.12.6.218>
- 조유진 (2018). 이야기꾸미기를 통한 유아 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 인지능력 및 사회성에

-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2(3), 193-216. [http://doi.org/10.32349/EC\\_ERR.2018.6.22.3.193](http://doi.org/10.32349/EC_ERR.2018.6.22.3.193)
- 지성애, 조유진, 신상아 (2019). 주제 중심 쌓기놀이 활동이 유아의 공간지각력과 언어능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3(5), 151-175. <http://doi.org/10.32349/ECERR.2019.10.23.5.151>
- 채승연 (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과 현실적 딜레마.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안지영, 임연자 (2012). 주제탐색을 통한 쌓기놀이 활동이 유아의 공간조망능력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제에 대한 상호작용, 계획하기, 평가하기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257-278.
- 허민정, 권희경 (2019). 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인식에 대한 개념도 분석: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40(4), 35-59. <http://doi.org/10.18023/kjece.2020.40.4.002>
- Bandura, A. (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pp. 307-337). NC: IAP.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edenkamp, S. (1985). *The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s and procedures of a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Holloway, S. D., & Reichhart-Erickson, M. (1988). The relationship of day-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 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Quarterly*, 3(1), 39-53.
- Huizinga, J. (2018). **호모루덴스**(이종인 옮김). 고양: 연암서가(원판 1938).
- Katz, L. G. (1972). Developmental Stage of Preschool Teachers. *Elementary School Journal*, 73(1), 50-54. <https://doi.org/10.1086/460731>

논문투고: 22.02.22

수정원고접수: 22.03.30

최종게재결정: 22.04.08